

두산로보틱스, 증권신고서 제출...본격 IPO 공모 절차 돌입

- ▶ 국내 협동로봇 시장점유율 1위...업계 최다 라인업 보유
- ▶ 9월 11~15일 수요예측, 9월 21~22일 일반 청약 예정

[2023-08-23] 국내 협동로봇 시장점유율 1위 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박인원, 류정훈)가 23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상장을 위한 본격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상장에서 16,200,000 주를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21,000 원 ~ 26,000 원으로 총 예상 공모금액은 3,402 억원~4,212 억원이다. 수요예측은 9 월 11~15 일, 일반청약은 9 월 21~22 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며, 공동 주관사는 KB 증권, NH 투자증권, CS 증권이다.

2015 년 출범한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양산을 시작한 2018 년부터 줄곧 국내 시장점유율 1 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2021 년 이후에는 세계시장(중국시장 제외)에서 4 위를 수성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40 여개국, 100 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통해 전체 매출 중 6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으며, 지난해 5 월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의 높은 성장성은 회사 전반에 자리잡은 연구개발 DNA 에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현재 ▲ 모든 6 축 회전축에 토크센서를 내장한 M 시리즈 4 개 라인업 ▲ 가반하중 25 kg으로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H 시리즈 2 개 라인업 ▲ 합리적인 가격으로 업계 최고 속도를 구현한 A 시리즈 6 개 라인업 ▲ F&B 산업에 특화되어 미국 위생안전기관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의 식품위생안전 인증을 획득한 협동로봇 E 시리즈 1 개 라인업 등 업계에서 가장 많은 13 개 라인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힘 감지력과 충돌 민감도를 확보하고, 최고 안전등급인 PLe*, Cat4**를 획득했다. 이 외에도 전 직원의 약 40%를 연구개발(R&D) 인력으로 구성해 소프트웨어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 PL(Performance Level) : 안전시스템의 신뢰도 등급으로 a부터 e까지로 구분되며, e가 최고 등급임

** Cat(Category) : 안전시스템의 분류 기준으로 1~4 단계로 구분되며, 4가 최고 단계임.

2021 년과 2022 년에는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의 성장세와 회사의 탁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2 년 연속 협동로봇 연간 누적 판매량 1,000 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도 유럽, 미국, 아시아 등해외에서 긍정적인 제품 평가와 함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어 글로벌 로봇 시장 내 두산로보틱스의 입지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 및 생산 역량 강화 등에 사용해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화함으로써 협동로봇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사업확장을 위한 해외 채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용성이 높은 B2C 로봇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두산로보틱스는 제조, 푸드테크 등 다양한 협동로봇 솔루션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개발하며 외형을 확대해왔다”며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더욱 고도화하고, 다양한 산업에 협동로봇을 적용하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두산로보틱스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제출	2023년 8월 23일(수)
수요예측	2023년 9월 11일(월) ~ 9월 15일(금)
청약	2023년 9월 21일(목) ~ 2023년 9월 22일(금)
공모(예정)주식수	16,200,000 주
주당공모가액	21,000 원 ~ 26,000 원
공모예정금액	3,402 억원 ~ 4,212 억원
상장(예정)주식수	64,819,980 주
예상시가총액	1 조 3,612 억원 ~ 1 조 6,853 억원